

제3전선, 정보전쟁 미국의 과학인재 확보전



1 1946년 페이퍼클립을 통해 미국으로 이주한 베르너 폰 브라운(앞줄 오른쪽에서 일곱 번째)을 포함한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 2 폰 브라운 박사는 20세기 우주 탐사의 가장 중요한 로켓 개발자로 손꼽힌다. [사진 NASA 홈페이지]

미, 나치부역 독일과학자 데려오려 이력 세탁까지 해줬다

최성규 고려대 연구교수



2차 세계대전이 끝을 향해 가던 1945년 3월 독일 본 대학에서 색인카드 형태의 문서 더미가 미국의 과학정보부대 알소스(Alsos) 팀에 의해 발견됐다. 나치의 무기개발에 동원된 과학자 명단과 연구개발 현황이 잘 정리된 문서였다. 그런데 이 문서를 토대로 나치의 무기 개발수준을 하나하나 체크하던 알소스팀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미국이 꿈으로 여겼던 무기들이 독일에서는 이미 실험을 넘어 실용단계에 들어선 것을 확인했다. 가령 당시 미 공군은 비행속도 마하 1이 꿈이었으나 독일은 이미 실전 배치 단계였다. 이뿐만 아니었다. 당시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시속 6000km, 고도 80km의 놀라운 성능을 가진 V-2 로켓도 실용단계에 있었다. 이외에도 세계 최초의 현대식 잠수함 등 향후 군사력 판도 변화를 이끌 첨단 무기들이 수도룩했다. 이를 직접 확인한 미국은 한편 놀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이 과학기술자들을 미국으로 데려오면 미국의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서였다.

1945년~1960년대 '페이퍼클립' 작전
미, 1945년 독 무기개발 수준에 경악
나치과학자 비밀리 미국 이주 작전
1차 127명 입국...소련과 확보 경쟁도
여론 잠재우려 나치 참여 기록 은폐
나치과학기술자 1600여명 미국행
미국 국력성장 중요 에너지로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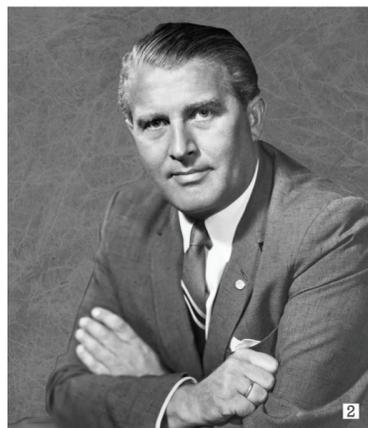
부를 주는 것은 심각한 법적, 외교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그러나 포기할 수 없었던 국방부는 이들을 일시적으로 활용 후 다시 독일로 돌려보내겠다고 설득해 극복했다. 그 결과 1945년 8월 나치과학자 127명이 1년 계약으로 어렵게 미국에 입국했다. 그런데 이즈음 예상치 못한 호재가 나타났다. 소련도 나치과학자를 은밀하게 데려가기 시작했다. 오소아비아함 작전(Operation Osoaviakhim)으로 나치 과학자들을 아예 모스크바로 집단 이주시키는 비밀 작전이었다.

이때부터 미국 내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나치 과학자들을 소련에 빼앗기면 유도 미사일 등 첨단 무기개발이 순식간에 역전당하므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핵심인재는 미국이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됐다. 호기를 맞은 국방부는 이때부터 이 작전을 전담할 합동정보목적국(JIOA)을 신설하고 여기에 OSS(CIA의 전신)도 포함시키는 등 조직을 확대했다. 또한 미국으로 데리고 올 나치 과학자 대상도 확대했다. 모든 것이 확대된 2단계 작전이 시작됐다.

그런데 이번에는 여론의 반대라는 복병이 나타났다. 1945년 10월부터 2차 대전 전범들을 단죄하기 위한 뉘른베르크 국제재판이 시작되자, 나치 전범들의 비윤리적 행위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나치과학자 활용에 대해서도 윤리적 비판이 빚뻗았다. 특히 유대인 사회와 지식층의 반대가 컸다. "아무런 죄의식 없이 유대인 집단학살에 부역한 나치 과학자들을 미국에 데려오겠다는 발상 자체가 미국이 윤리적 타락의 늪에 빠지는 신호"라며 반발했다. 아인슈타인까지 나서 이 계획을 취소해 주도록 트루먼 대통령에게 청원했다. 그러나 작전을 총지휘한 아이젠하워 육군참모총장은 단호한 리더십을 통해 돌파했다. "윤리적 비판을 이해하지만, 모두 내가 지시한 것으로 책임질 일이 있으면 내가 책임지겠다"며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아이젠하워의 책임지는 리더십을 통해 여론의 장애를 극복하자 작전은 급물살을 탔다. 소련의 나치 과학자 빼내가기 차단 등 주춤했던 작전들이 활기를 되찾았다. 특히 이들을 미국으로 이주시키는데 가장 장애물이 된 나치참여 이력을 적극 해결했다. 주로 나치기복 은폐나 이력 세탁 등 일탈적 방법이 동원됐다. 가령 나치의 로켓개발을 주도한 베르너 폰 브라운은 나치 고위당원이었을 뿐만 아니라 로켓개발 과정에서 수천 명의 노동자들을 사망케 했으나, 미국은 나치의 고위당원이 아니라 평당원이



였을 뿐이며 노동자 사망 증거문서들은 모두 분실됐다며 기록 자체를 없애 버렸다. 나치의 생물무기 책임자로 다하우 수용소에서 생체실험을 주도했던 쿠르트 블로메에 대해서도 생체실험기록을 삭제한 후 '의학연구자'로 신분을 세탁해 주었다. 특히 1948년부터 이 작전을 주도한 CIA는 국무부의 엄격한 입국심사 때문에 미국 입국이 어려운 나치 과학자에 대해 '국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자'라는 내용을 첨부해 입국시켰다. 이처럼 미국이 필요로 하는 과학자에 대해 모든 입국 걸림돌을 제거해 주었다.

이즈음 미국 여론도 조금씩 현실론으로 변하기 시작했다. 여기에는 상무장관 헨리 월리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군사과학자들만 데리고 오면 약마와 손잡는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으니 산업과 서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나치기술자들도 데리고 오자고 제안했다. 이어 나치과학자들도 미국 경제의 자산으로 편입시켜 국부 창출의 새로운 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여론도 띄었다. 그러자 페이퍼클립 작전에 소극적이었던 트루먼 대통령도 이 구상을 승인했다. 이에 효모를 무제한 생산할 수 있는 식료기술자, 실이 풀리지 않는 여자 스타킹 제조기술자 등 서민경제에 필요한 과학기술자들도 미국에 들어왔다. 이로써 페이퍼클립 작전이 경제·산업분야로까지 확장됐다.

이후 1960년대까지 작전이 진행되는 동안 1600여 명의 나치 과학기술자들이 미국에 입국했다. 그리고 이들의 기여는 군사·과학·산업 등 분야마다 눈부셨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독보적으로

발전시켜 전후 미국의 군사적 패권확보에 결정적 기여를 했고, 1969년 아폴로 11호의 달 착륙과 NASA의 우주프로그램을 주도하는 등 미국을 과학기술 강국으로 이끌었다. 또한 합성연료·광학기술·정밀산업도 발전시켜 오늘날 미국 사회의 물질적 풍요를 뒷받침했다. 한마디로 페이퍼클립 작전은 단순히 군사력 발전을 넘어 전후 미국의 국력 성장에 중요한 에너지로 활용됐다.

이 과정에서 윤리적 저항 등 난관도 있었다. 그러나 소련의 나치 과학자 집단 이주작전이 페이퍼클립 작전의 정당성 명분을 제공하는 등의 도지도 없게 난관을 극복하는데 힘을 보태주었다.

물론 미국의 윤리적 자성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미 정부 합동그룹(IWG)이 미국의 나치전범 활용 실태 등을 조사해 발표한 '미국 정보기관과 나치' 보고서(2005년)에서 "우리는 가장 악독한 나치전범의 도움을 받아 전후 시대를 시작했다. 이것이 타당했는지는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썼다. 미국의 공식 자기반성문이다. 오늘날 미국의 풍요가 윤리적 희생 위에 이루어졌음을 잊지 말자는 의미기도 하다.

'사람이 곧 국익이고 안보' 새 지평 열어

미국 사회도 성숙하게 대응했다. 비판은 비판대로 수용하되 나치 과학자들이 미국 사회에 기여한 노고에 대해서는 박수와 존경을 보냈다. 미 우주로켓 센터가 '우주과학 명예의 전당'에 나치과학자 베르너 폰 브라운, 오스카 홀더러 등의 이름을 올려준 것이 대표적이다. 국방부·상무부·NASA 등도 이들의 기여를 공식 인정했다.

페이퍼클립 작전은 정보사(史)적으로도 의미가 크다. '사람이 곧 국익이고 안보'라는 새로운 정보 지평을 열었다. 그래서 고급인재 확보전(戰)이 정보기관의 중요한 임무가 됐다. 지난 10월 미국이 'AI 국가안보법(NSM)'을 발표하면서 AI인재 확보전에 정보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것은 이를 말해준다. 중국의 해외인재 영입프로그램인 천인계획(千人計劃)도 마찬가지다. 중국 정보기관이 뒷받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앞으로 국운을 좌우할 AI·디지털 등 첨단 과학기술 경쟁 시대를 맞아 미·중간 인재확보 정보전이 치열해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기도 하다. 어수선한 정국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관계당국이 주시해야 하는 이유기도 하다.

〈광주일보와 중앙 SUNDAY 제휴 기사입니다〉

알소스(Alsos) 팀
2차 세계대전 중 미·영이 나치독일의 핵폭탄 개발 등 첨단 무기 연구·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조직한 합동 과학정보부대로 군인·과학자·정보요원들로 구성됐다.

오소아비아함 작전(Operation Osoaviakhim)
소련이 나치독일의 과학기술자 2500여 명을 비밀리에 모스크바 등지로 이주시킨 작전으로, 미국판 페이퍼클립 작전이라고 볼 수 있다.

'미국 정보기관과 나치(U.S. Intelligence and the Nazis)' 보고서
나치의 전쟁범죄 실상과 미국의 나치 전범자 활용 실태,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미 정보기관의 역할 등을 조사한 정부 보고서다.

새해 福 많이 받으세요.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since 1982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